

특정계파 ‘표적 제거’ 논란... 경선 후유증 예고

파열을 커가는 국민의당 광주 공천

4·13 총선에서 야권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혈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당이 이번 주중 본격적인 후보 공천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이번 주중에 각각 실시하고, 빠르면 이번 주말에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 특정계파의 ‘표적 제거’ 논란이 일면서 경선 탈락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전망된다.

1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14일께 각 선거구별로 경선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지난주 단수 후보로 서구를 천정배 공동대표와 동남을 박주선 의원이 거론됐지만, 일부 예비후보들의 반발로 공식 발표가 보류됐다.

현재 면접을 마치고 경선 주자 확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후보는 서구를(김하중·천정배), 동남갑(김명진·김영집·서정성·장병완·정진욱), 서구갑(김재두·송기석·이건태·정용화·장홍호), 광산갑(김경록·김동철·윤봉근·이상경), 북구를(이태림·최경환), 광산을(권은희·최선욱·고원), 북구갑(국성근·김경진·김유정·진전기·홍인화) 등이다.

국민의당은 예비후보들이 많은 곳은 3명, 예비후보들이 적은 곳은 2명씩으로 압축한 뒤 빠르면 이번 주말에 속의배심원 단계를 통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다만, 1차 경선에서 한 후보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예약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광주지역 경선·공천 레이스를 앞두고 국민의당 안팎에서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야권연대를 둘러싼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간 힘겨루기와 계파 갈등이 맞물려

오늘 경선 후보자 발표

주말에 속의배심원 경선

김하중 공정 경선 보장 요구

내분이 심해지는 형국이다.

천 대표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에 출마하는 김하중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천 대표에 대한 단수공천은 창당 이념을 흔들게 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는 “천 대표는 광주 경선 시행세칙 결정과 배심원단 구성에도 관여해 ‘선수가 규칙도 만들고 심판도 뽑은 셈’”이라며 “더욱이 선거연대를 빌미로 당무를 거부하면서 뒷전에서는 단수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천 대표는 스스로 강조한 ‘뉴DJ’들이 공존할 수 있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수도권 출마를 촉구했다.

천 대표 측 인사들은 반대로 공천 심사를 두고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

천 대표가 이끈 국회의원회 시장 위원장 출신 김영집 국민의당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당 공천심사에서 국회의원회 후보에 대한 ‘표적 제거’가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탈당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안철수 공동대표 진영에서 추천한 공천관리위원들이 안 대표 측 후보들에게 최고점을 주고 표적제거 후보에게는 최저점을 줘서 경선참여를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면접 심사뿐 아니라 과거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다”며 “채



피켓 향의 받는 김중진 더불어민주당 김중진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콘서트 ‘더 드림(The Dream)’행사를 마친 후 나오다 공천에서 배제된 정청래 의원의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점표 공개도 검토됐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광주지역 후보 경선 방식인 속의배심원단은 일반 유권자 50%, 시민사회 50% 구성안과 시민사회 15%, 학계 20%, 직능단체 15%, 일반유권자 50%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21일까지 경선·비례 공천 마무리

국민안심번호 경선 시작

북을·광산갑 17~18일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4·13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착수했다. 또 이번 주 내에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를 마무리해 오는 21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확정하고 공천 심사작업을 종료한다.

더민주에서는 253개 지역 선거구 가운데 226개 선거구에서 1명 이상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이중 194곳에 대한 공천심사를 완료해 후보 신청지역 기준으로 85.8%의 심사를 마쳤으며, 32곳은 심사가 진행중이다.

더민주의 이날 18곳의 선거구를 시작으로 15일께 9곳, 16일께 23곳에 대한 경선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경선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구별로 성별·세대별 비율에 맞춘 5만명의 안심번호를 받은 뒤 ARS(자동응답방식) 전화를 통해 선거인단 모집과 동시에 지지 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민주의 선거구별로 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이틀간 투표를 실시하고, 유효 투표수가 300명을 초과할 경우에만 투표 결과를 인정하기로 했다. 300명 이하면 비상대책위 결정을 거쳐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1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 2위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후보를 가려낸다. 1차 경선 결과는 14일 밤에 나올 예정이며 20일까지는 결선투표를 포함한 모든 경선을 마무리하고 지역구 공천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관위는 이날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32곳의 선거구에 대한 공천작업을 가급적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광주 서 갑은 박해자 의원과 송갑석 예비후보의 경선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구 을과 광산 갑은 오는 17~18일 경선이 치러진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까지 맡은 공관위는 지난 11일부터 비례대표 공천신청자에 대한 심사작업에 착수했다. 공관위는 228명의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기에는 물리적 일정이 촉박하다고 보고 자

재 컷오프를 거친 뒤 14일부터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민주의 비례대표 심사가 끝나면 20일이나 2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순번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명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 전원이 모두 단수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민주 비대위원은 김중진 대표를 포함해 모두 7명이며 김 대표는 지역구 출마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고, 박영선 의원은 지역구 예비 후보가 없어 단수 공천됐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모두 예비 후보가 있는데도 단수 공천을 받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전남에서는 나주·화순(신정훈 의원), 광양·곡성·구례(우윤근 의원), 담양·함평·영광·장성(이개호 의원), 해남·완도·진도(김영록 의원)가 현역단수 지역으로 결정됐다.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고 비례대표를 신청한 김성곤(여수시갑) 의원을 빼면 전남 더민주 지역구 현역 가운데 이윤석(영암·무안·신안) 의원만 서삼석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임내현 “명예훼손 법적 책임...무소속 출마 검토” 정청래·최규성 등 재심 신청...전병헌 “공천 탄압”

더민주·국민의당 컷오프 후폭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현역의원 공천 배제(컷오프)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당 첫 번째 ‘컷오프’ 대상이 된 임내현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심각하게 검토 중이다. 임 의원은 지난 10일 당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는 “이미 문제가 없다고 평판난 3년 전 일을 공개면접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은 저를 떨어뜨리기 위한 각본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비밀에 부치는 공천 시행세칙을 모든 후보에게 공개하고 투명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당의 조치가 없다면 면접장에서 씻을 수 없는 음해를 가한 행태에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구태정치를 주도한 배후세력을 광주시민에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지역주민이 무소속 출마가 중앙당이 짓밟은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되찾는 길이라고 말한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컷오프 후유증으로 어수선하다. 정청래·최규성·부좌현·윤호덕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고, 전병헌 의원은 성명을 통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전 의원은 당의 공천배제 결정을 ‘탄압’으로 규정해 성명을 발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충격적이고 황당하다”면서 “지역 여론이 누구보다 좋은 상황이고, 당의 여론조사에서도 최상위 순위로 하위 50%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park@

나만의 특별한 비법을 갖고 싶나요?

이제 원하는 교육을 직접 선택하세요.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연 1회 학원비의 70% 이내, 40만원 한도)

검색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사이트,
문의전화 1588-5302

내가 원하는 교육을 골라 듣는 재미!!
나만의 비법으로 매출은 쑥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교육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